

레코드 컨티뉴엄 기반 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 종교기관 기록콘텐츠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eaning of Record Contents Based on Record Continuum
: Focusing on the Record Contents of Religious Institutions

김명훈(Kim, Myoung-hun)*

1. 머리말
2. 생산기관 분석 및 생산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3. 레코드 컨티뉴엄의 논리와 교회기록콘텐츠의 활용
 - 1) 흔적에서 증거로: 교회기록의 획득 및 지식정보콘텐츠화
 - 2) 교회의 기억 형성과 기록콘텐츠화
 - 3) 교회기록의 다원화와 기록콘텐츠
4. 맺음말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 투고일 : 2017년 3월 28일 ■ 최종심사일 : 2017년 3월 31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4월 21일

〈초록〉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록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교회기록콘텐츠를 사례로 레코드 컨티뉴엄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의 학계 논의 및 실제 구축사례들에서는 기록콘텐츠를 특정 세부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기록을 토대로 고도의 컴퓨터 기술력 및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디지털 매체로 인식되고 있어, 기록콘텐츠의 보편화 내지 범사회적 확대에 저해가 되고 있다. ‘콘텐츠’는 ‘내용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의사소통 수단을 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볼 때, 기록의 활용성 강화 및 이를 통한 의미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콘텐츠 역시 고도의 기술력 및 예산이 투입되는 특정 주제기반의 디지털 매체란 인식을 탈피하여,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도 온오프라인 상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교회기록이 지닌 의미와 함께 활용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인 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교회기록콘텐츠가 지닌 의미의 사전적 모색을 위해 교회의 조직·기능분석과 함께 교회기록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어 3장에서는 교회의 조직·기능분석을 통해 파악된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연관지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절은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과 차원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의 활동 중에 생성되는 수많은 흔적이 증거로서의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함께, 조직 업무차원의 기록콘텐츠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3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해 시도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차원4에 해당하는 3절에서는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가 범사회적으로 다원화되는 사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결국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기록, 아카이브, 기록콘텐츠, 레코드 컨티뉴엄

〈Abstract〉

This study reinterprets the meaning of the record contents from the viewpoint of the record continuum to find way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records that are emphasized by the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In general, in academic discussions and practical examples, record contents are recognized as digital media produced by putting a high level of computer technologies and a big budget based on some records related to specific subjects. To enhance the usability of, and spread the meaning through, record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awareness in record contents. For this purpose in Chapter 2, to grasp the meanings of the church records as well as the utilization direction,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Therefore, the analysi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of the church was examined. In Chapter 3,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the meaning of the contents of church records in each dimension of the record continuum in relation to the mission of the church, which was identified through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 analysis of the church. In Section 3, which corresponds to Dimension 4, the meaning of church record contents is diversified in society. In the en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eaning and use value of records can be found in everyday life and can then be spread to society as well.

Keywords : Record, Archive, Record Contents, Record Continuum

1. 머리말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은 그동안 기록관리 영역을 주도해 온 패러다임을 변모시키고 있다. 종이기록 시대에 고착화되어 온 기록관리 방식은 전자기

록의 특성에 맞게 변모하였으며, 라이프사이클론을 비롯한 기존의 이론들 역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수정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록의 생성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사회 환경 및 조직의 운영방식이 변모함에 따라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 역시 변화를 요구받는다라는 점이다(Bearman 1994, 256-261; Delmas 2001, 295).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등장한 패러다임 중 하나는 기록의 활용성 강화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종이기록 시대를 대표했던 소위 '신성한 증거의 수호자' 역할을 넘어, 조직 및 사회에 필요한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기록학회에서는 검색열람 서비스의 강화, 아웃리치 및 홍보전략의 확대, 이용자 분석 강화 및 고객 중심의 마케팅 전략 도입 등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아울러 종이기록 환경 하의 기록관리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전자기록 환경을 모토로 새롭게 정립된 이론체계인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도 기록이 지닌 다원적인 의미 모색과 함께 최근의 기술력을 활용한 기록의 의미 확산 및 활용성 극대화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Upward & McKemmish 2006, 223; Flynn 2001, 80-90).

현재 우리나라 기록학계에서도 기록의 활용성을 강화시킨다는 의도에서 기록정보콘텐츠란 용어를 도입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김익한, 설문원 2006; 심성보 2007; 전수진 2008). 아울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등 실제 기록관리기관에서도 소장 기록물을 활용하여 실제 콘텐츠를 구축해 웹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학계 논의 및 실제 사례들에서는 기록콘텐츠를 특정 세부 주제와 관련된 일부 기록을 토대로 고도의 컴퓨터 기술력 및 일정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한 디지털 매체로 인식되고 있어 기록콘텐츠의 보편화 내지 범사회적 확대에 저해가 되고 있다. '콘텐츠'(Contents)는 '내용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인류가 의사소통 수단을 발명한 이래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다고 볼 때(김기덕 2003, 1), 기록콘텐츠를 통한 기록의 의미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콘텐츠 역시 고도의 기술력 및 예산이 투입되는 특정 주제기반의 디지털 매체란 인식을 탈피하여, 우리 일상생활 주변에도 온오프라인 상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록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기 구축된 교회기록콘텐츠 사례를 통해 레코드 컨티뉴엄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주목적은 고도의 컴퓨터 기술 및 예산 투입을 통한 실제 기록콘텐츠 구축사례 제시가 아니다. 기록의 활용성 강화 및 이를 통해 기록의 의미 확산을 의도한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에 근거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교회기록콘텐츠 사례의 재해석이 주목적이다. 결국 이를 통해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고, 기록콘텐츠의 구축에 앞서 그 의미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교회라는 조직체에서 기록콘텐츠가 지닌 의미의 사전적 모색을 위해 교회의 조직·기능분석과 함께 교회기록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기존의 종이시대처럼 생산자에 의해 부여된 단일 의미체로 파악하지 않고, 기록의 본질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방향성을 끊임없는 맥락의 변동에 따른 변화의 연속체로 파악함을 염두에 둘 때, 교회기록이 지닌 의미와 함께 활용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인 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조직·기능 및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분석은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기록관리상의 특성과 더불어 기록콘텐츠의 방향을 가늠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3장에서는 교회의 조직·기능분석을 통해 파악된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연관지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1절은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과 차원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의 활동 중에 생성되는 수많은 흔적(traces)이 증거로서의 기록(records)으로 획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안과 함께, 조직 업무차원의 기록콘텐츠화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3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해 시도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였으며, 차원4에 해당하는 3절에서는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가 범사회적으로 다원화되는 사례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2. 생산기관 분석 및 생산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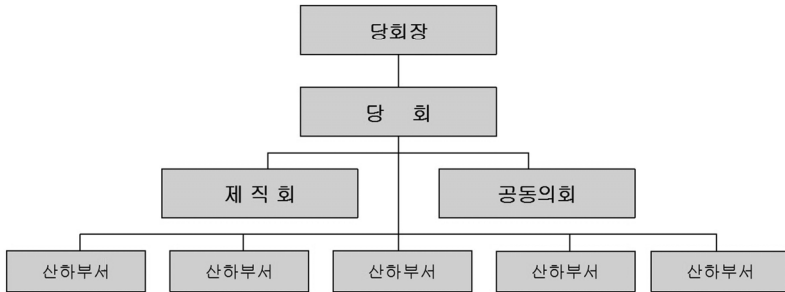
최근 조직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화 및 다변화 경향과 함께 기록물이 생산되는 맥락 역시 복잡화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전통적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기록생산 메커니즘 하에 기록을 업무의 결과로 파악하는 시각을 버리고, 조직 활동에 대한 증거 및 사회적 기억을 포착하기 위해 기록이 생성되는 모태인 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이 사전적으로 전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없이는 복잡해진 기록의 맥락 확보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물을 업무의 부산물인 결과로서가 아닌 사회적으로 구조화되고 유지되는 실체로 파악해야 하며, 따라서 기록 및 기록관리는 사회라는 거대 환경 속에서 그 본원적 의미를 재발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났다(Trace 2002).

이러한 경향과 맞물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을 기존의 종이시대처럼 생산자에 의해 부여된 단일 의미체로 파악하지 않으며, 기록의 본질과 기록관리 행위의 의미 그리고 사회적 역할의 방향성을 끊임없는 맥락의 변

동에 따른 변화의 연속체에서 찾고 있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행위 결과로서의 기록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차원 및 축선을 달리 한 다방면의 활용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록의 관리에 앞서 기록이 생성된 모태에 대한 분석이 전제되며, 이를 통한 다원적인 맥락 파악 속에 기록을 고정시킴과 아울러 끊임없이 확대되는 맥락 메타데이터 요소들과 연계시킴으로써 시공을 초월한 접근성 및 활용성을 부여하게 된다(McKemish 2001, 335-336, 349). 이에 아래에서는 기록의 활용성 확대를 위한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 모색을 위해, 기록의 생성 모태인 교회의 조직 및 기능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개교회는 일반적으로 교회의 보편적 대사명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종교 사업 수행과 더불어 교회 자체의 형상 유지를 위해 조직을 편제하게 된다. 이러한 개교회의 조직은 대사명을 근간으로 하는 기능 및 교회 내 직분을 기반으로 위계화 된 구조를 형성한다.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대로 개교회는 당회를 거점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당회는 교회내의 최고 의결기구로, 개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부목사 및 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당회에서는 교회의 주요 사업 및 장·단기 교회운영 방향, 연간 예산 등을 심의·결정하며, 교회내의 제직 임명 심의 및 기타 인사상의 권한을 지니고 있다. 당회의 장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담임목사가 담당하게 되며, 당회 및 교회의 운영 전반을 교리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당회 산하에는 제직회와 공동의회란 회의체가 존재한다. 제직회는 교회 내의 직분자들로 구성된 회의체로, 회원은 목사, 전도사 등의 교역자 및 장로, 집사, 권사로 구성된다. 공동의회는 교회 세례교인 중 18세 이상인 신도들로 구성되며, 예·결산, 직원선거 및 기타 당회가 제시한 사항에 대해 다수결로 결의하는 권한을 지닌다.

〈그림 1〉 교회의 조직 구성



이러한 회의체적 조직 아래에는 교회의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집행부서들이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전파하는 조직체로,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라는 공통된 대사명을 지니고 있다. 예배기능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예물을 드리는 교회의 본원적 기능으로, 일주일에 1회 주일날 성수하는 대 예배와 수요예배, 특별예배 및 각종 기도회의 준비 및 수행을 담당한다. 예배기능은 목사, 전도사 등 교역자의 고유 영역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준비 과정 및 수행, 찬양 등을 위해 일반 신자 역시 조직적으로 배치되어 참여하게 된다. 선교기능은 하나님의 말씀 및 증거를 전파하는 교회의 지고한 사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인류 구속의 의지에 근거하는 기능이다. 선교는 지역을 기준으로 크게 국내선교와 해외선교로 양분할 수 있으며, 또한 학원 선교, 병원선교, 군선교 등 선교 대상을 통해서도 구분하기도 한다(이영학 외 2012, 138).

교회의 교육기능은 성경을 근간으로 한 가르침을 통해 성도를 양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도록 교육하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성경적 깨우침을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아로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르치

는 주일학교와 함께, 대학생·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교회 직분자 및 일반신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새신자를 대상으로 성경의 기초 지식을 전수하는 교육 등이 수행된다. 디아코니아(Diakonia)로 불리는 봉사기능은 초대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교회의 봉사기능은 사회구제 활동, 지역사회 봉사, 농어촌 봉사 등 지역 및 대상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수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코이노니아(Koinonia)란 어원을 지닌 친교기능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 및 성도간의 교제라는 두 개의 고유 영역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는 다양한 종교 활동들을 통해 실현되며, 교인간의 친교는 교구를 설정하여 친교 공동체를 형성함과 아울러 각종 애경사에 상부상조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이영학 외 2012, 138-139).

이러한 교회의 조직 및 기능 운영상에서 살필 수 있는 기록학적 특징 요소들은 먼저 조직 및 기능의 안정성, 지속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라는 보편적 대사명을 기반으로 조직을 편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직체계는 큰 변동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는 조직학에서 언급하는 형상유지(Pattern Maintenance) 조직으로서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조직처럼 특정 목표의 달성을 근본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행 체제의 관리 및 지속성 유지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말이다. 이는 곧 특정 목표의 변화 등에 따라 조직을 부단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현행 조직구조의 변화가 그리 빈번치 않다는 특성으로 연결된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17).

두 번째는 비공식적 조직으로서의 특성으로, 이는 계약적 관계보다는 교인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과 아울러, 한국 교회의 가족공동체적 특성에 기인한 귀결이다. 따라서 일반 조직처럼 모든 업무처리가 '문서'를 통해 처리되기 보다는, '구두'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한국

국가기록연구원 2004, 18).

조직구조와 기능구조의 일치 및 부서간의 명확한 경계 역시 기록학적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회의 보편적 대서명을 근간으로 한 조직편제 하에 이의 구체적 수행을 위해 세부적으로 산하 부서들을 편제하는 관계상, 조직구조와 기능구조는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비상근 방식의 조직운영 역시 조직상의 특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회는 자발적 신자들로 구성된 종교단체이다. 교회의 예배 및 각종 행사들은 주로 일요일 당일에 수행되며,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일요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 및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교회행정 및 관리를 위해 교회에 상근하는 소수의 직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서들은 주로 일주일에 1회 부서의 기록물을 생산하게 되며, 따라서 조직 구성원의 수에 비해 기록물 생산량은 일반 조직에 비해 소규모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18).

교회 조직의 이러한 특성에서 연유한 결과로 교회기록물 역시 몇 가지 특성을 지니게 된다. 우선 매년 유사 기록물의 반복적 생산 경향이 강하다. 즉 예배 및 교회의 전체 행사, 각 부서의 연중행사 등은 일정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며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격을 지니며, 이로 인해 매해 동일한 제목 하에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의 종류가 대부분이다. 두 번째로 교회의 반복적인 행사 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이 다수 생산되게 되는데, 사진류, 오디오·비디오류, 도서류 및 간행물, 박물류, 전자문서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상당수에 이른다. 그리고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특성 역시 도출할 수 있다. 즉 교회의 활동 중에 공식적으로 생산되어 이관되는 아카이브즈 성격의 기록물도 존재하지만,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도 상당량 존재한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19).

이상과 같은 교회의 조직·기능 및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 분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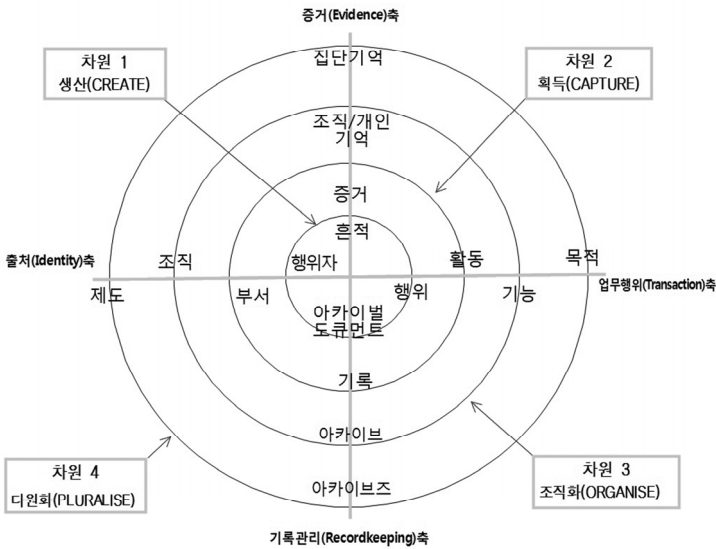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기록관리상의 특성 및 기록콘텐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1에서는 교회 활동을 통해 행위의 흔적이 생성되며, 차원 2에서는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교회 활동에 대한 증거로서의 기록 획득과 함께 지식정보콘텐츠로서 활용상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차원 3에서는 조직화 과정을 통해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연계된 교회 조직 내에서의 기록콘텐츠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차원 4에서는 다원화 과정을 기반으로 범사회적으로 교회기록의 의미 확산이 그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하는 논리에 근거하여 각 차원을 달리하며 교회기록이 지니게 되는 의미 및 기록관리상의 논점과 함께, 맥락을 달리하며 지니게 되는 교회기록의 의미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실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3. 레코드 컨티뉴엄의 논리와 교회기록콘텐츠의 활용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 및 기록관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한 레코드 컨티뉴엄 이론은 그동안 기록이 지닌 고정적 의미를 탈피하고 다양한 가치를 모색하게 해준다. 일반적으로 레코드 컨티뉴엄은 기록의 생산 시점부터 아카이브로서의 보존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관리체제로 인식되는데, 종래의 라이프사이클에 기반을 둔 양분화된 기록관리체제를 지양하는 레코드 컨티뉴엄은 전자기록 환경과 더불어 기록의 생산 연원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 및 업무 수행방식의 변화 속에, 기존의 기록관리 이론 및 방법론을 근원적으로 재고려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전략적 사고라 할 수 있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아래의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4개의 축선과 4개의 차원을 통해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을 도해화 시킨다.¹⁾ 우선 증거 축(Evidential Axis)은 행위를 표현한 흔적·증거·개인 내지 조직의 기억 및 집단기억으로서 기록이 지니는 역할을 나타낸다. 이 축은 행위·관계 및 이와 연관된 개인·단체에 대한 가치추가 정보의 근원으로서, 업무 및 사회적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집단적·사회적·문화적 기억으로서 그리고 개인·단체·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근거로서 총체적 사회에서 갖게 되는 기록이 지닌 활용 의미를 나타낸다.

〈그림 2〉 레코드 컨티뉴엄 도해



1) 이하의 내용은 Frank Upward,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 - 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Publications* 및 원종관, 2007.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업무행위 축(Transaction Axis)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업무 기능과 관련된 축으로, 기록을 행위와 연계시키는 기능적 출처 역할을 담당한다. 행위는 업무 내지 사회적 활동을 형성하게 되고 활동은 업무 내지 사회적 기능을 형성하게 되며, 나아가 기능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적 목적으로 통합된다. 이를 통해 기록물에 기록관리 상의 '활동 기반' 맥락을 부여해 줌과 아울러, 이러한 행위의 층위와 연계하여 기록관리 프로세스가 자리하게 된다.

일정 서식을 통해 생성된 문서 및 증거로서 획득된 기록 그리고 개인 내지 단체의 아카이브 및 사회 전체로 다원화된 아카이브즈로 구성되는 기록관리 축(Recordkeeping Axis)은, 인간의 행위 내역을 기록화한 매개수단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축은 아카이벌 다큐먼트가 기록으로 획득되는 시스템 및 시공간에 기초한 일정 맥락을 기록물에 부여하게 되는 개인 내지 단체와 같은 권위체를 기반으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출처 축(Identity Axis)은 기록을 생산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낸다. 이 축은 행위자, 단체 내지 사회적으로 권한이 용인된 권위체 내의 개인 내지 그룹인 부서, 특정 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한 단체 내지 법인체인 조직 및 단체 내지 법인이체가 활동하게 되는 보다 넓은 사회적 범위인 제도로 구성되어, 출처의 소재를 표현함과 더불어 기록관리 상의 구조적 맥락을 부여해 주게 된다. 나아가 업무행위 축과 출처 축은, 최근 날로 복잡해지는 기록의 맥락을 해명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4개의 차원을 통해 축선에서 표현된 기록 및 기록관리를 둘러싼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제시한다. 우선 차원 1에서는 개인 내지 단체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를 표현하는 흔적(representational trace)으로서 아카이벌 도큐먼트를 생성시킨다. 차원 2는 개인 내지 단체의 행위 결과인 아카이벌 도큐먼트가 조직적 활동 단위로 편입되는 단계로, 조직의 필요를 충족시키게 되는 기록물이 기능-활동-처리행위로 이어지는 조직 활동의 위계와 연동하여 기록관리시스템으로 획득되게 된다. 그리고 차

원 3에서는 행위-활동-기능-목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업무행위와 업무행위를 문서화시킨 기록을 연계시켜 관리하게 되며, 업무의 직접적 이용 범위를 넘어 기록을 조직 전체의 기억으로 확대시키게 된다. 그리고 차원 4에서 기록은 조직 차원을 넘어 총체적 사회제도 차원에서 집단적·사회적 기억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총체적 사회적 필요를 위해 기록이 활용되게 된다.

이와 같이 레코드 컨티뉴엄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기록을 획득함과 동시에 맥락 내에 위치시키고, 이를 차원을 거치며 조직 및 사회적 맥락 내에 자리하게 하는 구도를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차원을 달리하며 각 차원마다 연계되는 축선상의 엔티티들과 조응하며 기록이 지닌 의미를 확대시키게 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각 차원을 달리하며 교회기록이 지니게 되는 의미를 교회기록콘텐츠 사례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1) 흔적에서 증거로 : 교회기록의 획득 및 지식정보콘텐츠화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차원 1을 통해 행위를 표현하는 흔적인 아카이벌 도큐먼트를 생성시키며, 차원 2를 통해 이러한 흔적들이 행위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하게 된다.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메타데이터 및 타 기록과의 연계관계 창출을 통해 기록의 맥락 및 증거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차원 3에서는 흔적들 가운데 선별된 기록이 다양한 시공간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공간 체계를 재정립하는 조직화가 수행되어 조직 차원의 기억인 아카이브가 되며, 차원 4에서는 이러한 아카이브들이 사회적 목적 및 역할에 부합되는 집단기억으로 다원화된다.

여기서 행위의 흔적인 아카이벌 도큐먼트가 행위에 대한 증거인 기록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하는 첫 번째 선별논리가 출발하게 된다. 즉 수없이 행해지는 인간의 행위에 관한 흔적들이 모두 남

겨질 필요는 없으며, 이중 개인적·조직적·사회적 의미를 지닌 대상을 기록으로 획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Reed 2005, 125). 수없이 많은 행위에 관한 도큐먼트 중 행위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서 획득하기 위해서는 복잡화된 행위를 둘러싼 다원화된 맥락의 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며, 바로 여기서 레코드 컨티뉴엄의 첫 번째 선별논리를 통해 획득된 행위의 흔적들은 차원 2를 통해 맥락을 지닌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기록이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다원화되고 복잡한 행위의 맥락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행위내역을 고스란히 반영한 증거를 의미하게 된다(Reed 2005, 101-107).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모두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기록을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공공영역처럼 법이나 제도를 통해 기록관리를 강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선 2장에서 고찰한 교회 조직·기능 및 기록관리상의 여러 특성들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기록콘텐츠 구축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행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기록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록관리 전 과정의 메인보드라 할 수 있는 기록물처리일정표와 같은 통제장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체 기록물에 대한 논리적 구조체계 수립을 통해 기록물의 분류 및 편철기준을 제시함과 더불어, 보존기간 책정을 통해 보존기간의 연한에 따른 기록물의 처리일정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처리일정표 수립 시에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사전적인 가치분석을 통해 보존기간을 책정함으로써 항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중요기록물을 원천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형상유지 조직으로서 계약적, 쌍무적 관계보다는 교인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전통과 함께 가족공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조직처럼 모든 업무처리가 문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처리되는 경우 역시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기록물 서식의 표준화 역시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교회의 사업 수행 및 행

정 전반을 담당하는 소수의 상근직원을 제외한, 일반 신도들로 구성된 대부분의 부서들의 경우 기록물 생산 담당자는 비상근 방식으로 일주일에 1회 교회에 출석하여 기록을 생산하며, 또한 해마다 교체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부서별 기록물 생산자의 성향에 따라 임의적으로 기록물이 생산되며, 따라서 해마다 기록물의 서식 및 유형이 매우 상이하다. 심지어는 등록번호, 생산자명, 생산부서명, 생산년도 등 기본적인 메타데이터가 기재되지 않은 채 참고자료 형태로 생성되는 기록물이 대부분인 관계상, 당사자 이외에는 해당 기록물이 생산된 맥락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록물 서식의 표준화를 통해 기록물의 맥락 파악에 필수적인 메타데이터를 생산 시부터 포착할 수 있도록 해야 신뢰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을 둔 기록콘텐츠의 생성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중요기록물에 대한 생산 지정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교회의 사업 및 활동은 1년을 주기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성을 지닌다. 신년예배,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세례식, 창립기념행사, 체육대회 등 상당수의 교회 전체규모 사업이 일정 시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며, 각 부서의 사업 역시 교육, 선교, 사회봉사, 친교 등 종교적 속성을 지니며 부서별로 해마다 반복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생산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중요 업무 및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생성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중요 업무 및 행사에 관한 지식정보콘텐츠로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록물처리일정표를 통한 중요기록물의 원천적 확보 및 서식의 표준화를 통한 필수 메타데이터의 확보, 그리고 필수 기록물에 대한 생산 지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중요기록물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콘텐츠화를 시도하였다. 본 교회의 경우 신도 수 200명 정도의 교회인 관계상 컴퓨터 시스템을 통한 지식정보콘텐츠 구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일요일에만 교회에 출석하여 기본 메타데이터조차 미흡한 상태로 참고자료 형식으로 문서가 만들어지며, 각 부서별 담당자 역시 매년 교체되어 해당 문건의 관리도 거의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 부서별 중요 행사

에 관한 행위의 흔적들은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표 1〉 교육부서의 생산의무 기록물 지정 예시

필수 기록물철명
연간 행사계획서철
학생 생활기록부
중등부 주보철
학생자치회 회의록
여름성경학교 행사철
겨울성경학교 행사철
문학의 밤 행사철
학생심방보고철
교사 월례회의회의록
총계정원장
금전출납부

이에 우선적으로 매년 주기적으로 수행되는 중요 사업 및 행사들을 교회 교역자들의 협조 및 관련 자료들을 통해 파악한 다음, 각 부서들에 대한 업무기능 및 절차와 더불어 관련 규정·지침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마다 생산되어야 할 기록물 유형을 위의 도표와 같이 도출하였다. 그리고 사전적인 기록물의 가치분석을 통해 법적, 재무적, 행정적 등 증거로서의 가치 및 업무 및 행사 기획을 위해 필요한 지식정보로서의 활용상의 가치를 분석하여, 각 부서별로 필수적으로 생산될 필요가 있는 중요기록물을 표준화된 서식에 따라 필수 메타데이터와 함께 생성케 함과 더불어 이를 지정된 공간에 보존하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말하는 수많은 행위의 ‘흔적’들 가운데 기록물 서식의 표준화를 통한 기본적인 메타데이터의 확보를 기반으로, 교회 운영상의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해 교회기록콘텐츠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아울러 필수 기록

물에 대한 생산지정제도를 도입하여 교회의 활동상을 표상화 시키며 본원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식정보로서 의미를 지닌 중요기록물을 원천적으로 확보케 함으로써 보다 진전된 행사의 기획 및 수행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정보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2) 교회의 기억 형성과 기록콘텐츠화

기록은 항상 전화(轉化)의 과정 중에 있다는 의미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기록의 '고정성'(fixed nature)과 '변화성'(mutable nature) 개념을 도출한다(McKemmish 1994, 200). 즉 기록을 내용 및 구조가 고정된, 그러나 이러한 내용 및 구조에 끊임없이 확대되는(ever-broadening) 맥락 메타데이터 요소들을 연계시킴과 더불어 시공을 통해 접근성 및 활용성을 지닐 수 있게 되는 '동적 객체'로 파악하는 말이다(McKemmish 2001, 349). 이를 통해 0.1초이건 몇 천 년이건 조직 및 사회에 대한 가치를 지니는 동안 아카이브에 대한 접근 및 활용성을 담보케 한다(McKemmish 2001, 335-336).

이러한 점에서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기록은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의 관리 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행위의 흔적 가운데 맥락성 및 증거성을 확보하며 획득된 기록에 대해 조직에 필요한 대상을 면밀히 선별함과 아울러, 이러한 대상이 필요로 되는 한 유지시켜 활용케 한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 이에 레코드 컨티뉴엄에서는 차원 2에서 맥락성 및 증거성을 지닌 채 획득한 아카이브 도큐먼트를 기록으로 명명했다면, 이들 기록 중 기관 차원의 필요를 위해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을 아카이브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차원 3의 조직화 과정을 거치며 조직 내의 활용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교회기록 역시 조직화 단계를 거치며 교회 공동체의 기억 유산으로서 관리·활용되게 된다. 이러한 기억을 기반으로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활용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기록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

의할 점은 기록콘텐츠는 기록 속의 내용을 재가공하는 IT 기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기록의 의미 및 기록관리의 역할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변모해왔음을 염두에 둘 때, 기록콘텐츠는 기록이 지닌 현재적 미래적 의미 모색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김명훈 2010, 148-149). 교회는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본원적 사명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교회기록콘텐츠 역시 이러한 본원적 사명을 모토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과 관련하여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시도한 기록콘텐츠의 사례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1) 설교 기록콘텐츠를 통한 성경말씀의 공유 및 확산

교회에서 설교는 성직자가 성경을 해석하여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배 순서이다.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기반으로 성직자가 작성하여 공식 예배 중 선포하는 것으로, 가톨릭과 달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예배에서 설교를 중시하는 관계상 일반적으로 1시간 내외로 행해지는 예배 가운데 30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설교는 예배와 신앙활동 상의 핵심적인 예식이자 교회기록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성직자가 수행하는 설교 기록물은 항상 항구적으로 보존함과 아울러 그 내용을 공유·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 왔다. 녹음 및 녹화기술이 보편화되지 못한 시절에는 설교 기록물을 정리하여 책자 형태로 출간해 그 내용을 보존·공유해왔고, 1970년대부터 녹음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녹음테이프 형태로 예배 중 행해지는 설교를 녹음하여 제작해 보존 및 활용하였다. 하지만 최근 동영상 기술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편화로 상당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의 설교를 녹화한 후, 접근성이 용이한 교회 홈페이지 상에서 설교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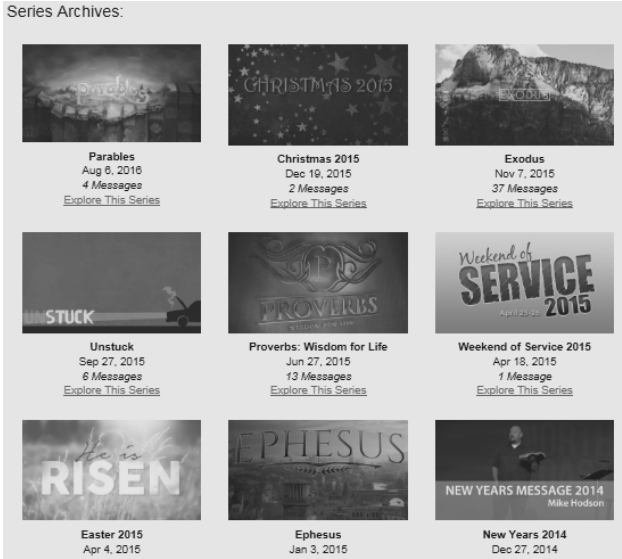
〈그림 3〉 설교동영상 서비스 화면



위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대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일 일자별로 설교제목과 설교의 근간이 되는 성경말씀을 기반으로, 해당 주일의 설교광경을 실시간 녹화하여 설교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울러 설교 내용을 요약한 자막 역시 제시하여 설교 내용에 대한 이해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추천메일 보내기 기능을 통해 설교 동영상의 공유 및 확산 또한 도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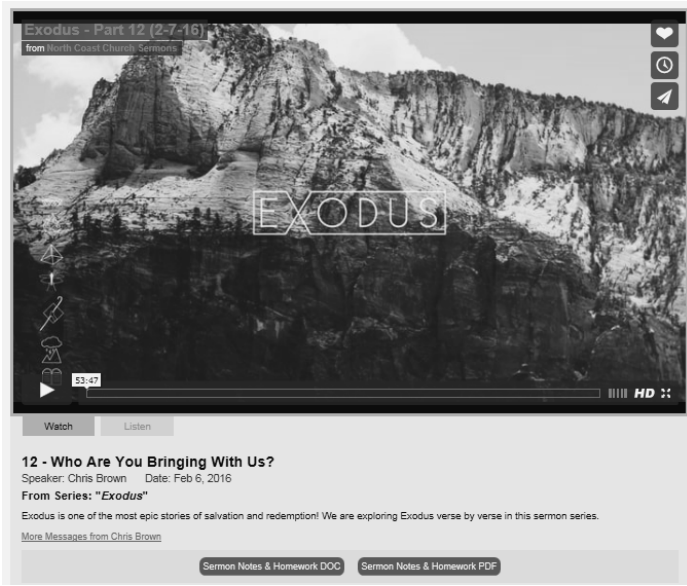
미국 노스코스트(North Coast) 교회 사례는 설교기록을 통한 복음의 확산이라는 교회기록의 보다 적극적인 공유 및 활용 방안을 제시해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디에고 인근에 위치한 초대형 교회인 본 교회는 미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교회 중 하나로 선정된 미국 복음주의 교파 중 가장 큰 교회이다. 본 교회는 설교 및 복음 전파를 위해 인근 4개의 도시에 4곳의 교회 분소를 마련해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이나 기타 예비 식순은 다소 상이하지만 설교는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동영상 중계를 하고 있다. 본 교회에서는 사역의 초점을 교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말씀의 교육에 두고 있으며, 최근의 기술 환경에 맞게 설교기록을 웹상으로 콘텐츠화 하여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서비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4〉 노스코스트교회 설교아카이브 화면



위의 그림은 노스코스트교회에서 구축한 설교아카이브의 메인 화면으로, 최근 수년간에 걸친 설교동영상을 일자 및 주제별로 분류하여 검색 및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메인 화면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해당 설교 주제를 선택하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주일 일자 및 설교제목 목록이 제시되며, 설교별 동영상 보기, 음성 듣기, MP3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출애굽 시리즈 중 하나의 설교 동영상 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설교 제목 및 일자, 설교자명과 함께 실제 설교영상이 상영되며, 또한 해당 설교의 주요 내용요약 및 설교를 통한 성경공부 텍스트도 제공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해당 교역자를 성명을 클릭하면 해당 교역자의 설교 기록을 일자 및 주제별로 재분류하여 제시해 주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다.

〈그림 5〉 출애굽(Exodus) 시리즈 설교 동영상 화면



이처럼 예배 중 생성되는 가장 중요한 기록인 설교기록의 콘텐츠화는 교회의 본원적 사명인 교인의 영적 성장과 성경 교육을 위한 도구로 볼 수 있다. 최근의 디지털 기술환경에 부합하게 출석하지 못한 교인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출석한 교인들 역시 다시 보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재묵상케 하고, 이를 통해 교회라는 종교조직 구성원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사례들과 같은 설교 동영상 서비스는 교회라는 개별 조직적 차원의 핵심적인 기록콘텐츠라 할 수 있다. 설교는 교회 신앙활동 상의 가장 중요한 기록으로, 교인들의 신앙생활 및 영적 활동의 모토를 이루며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2) 교회 역사의 전시 및 콘텐츠화

교회기록물의 전시는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의미 및 가치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다. 서울시에 위치한 신일교회의 역사관 구축 및 전시는 교회창립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기록콘텐츠 측면에서 전시는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즉 기록관의 존립 이유를 알리고 기록물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전시라는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특성을 사용하면 전달의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본 교회의 역사관 구축 및 전시는 교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60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아이디어 수집단계→사전준비단계→기획단계→전시단계→평가단계를 거치게 준비되었다. 아울러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 및 각종 박물관에 대한 이해성이 높은 교회 내부자들 및 전문 전시업체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아래의 그림과 같은 전시를 완성하였다.

〈그림 6〉 교회 역사관의 기록 전시 사례



100제곱미터의 전시공간에는 우선 교회 60년의 역사를 창립기, 재건과 안정기, 도약발전기, 향후 비전으로 나누어 아크릴 판넬에 사진과 주요 텍스트를 사용해 상설전시를 구성하였으며, 아울러 역대 당회장 및 당회원의

사진과 함께 본 교회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해외선교의 역사를 선교 지역별로 나누어 사진 및 해당 기록물 실물을 전시하였다. 또한 교회의 신앙활동과 관련하여 수집한 각종 박물관 및 고서류, 전시 효과가 높은 초창기 각종 기록 등을 위의 그림에서와 같이 주제별로 전시대를 편성하여 전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교회에서는 교회의 신앙역사에 대한 전시를 통해 교역자 및 장로, 제직, 일반신도에 대한 기억의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신자 및 대내외 방문객에 대한 교회 홍보의 장으로서 활용하며, 아울러 이러한 전시를 기반으로 본 교회의 신앙역사에 대한 상시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유아부로부터 일반신도에 이르는 산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 교회의 전시가 오프라인 형식으로 수행된 것이라면 새문안교회에서는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전시도 병행하며 기록콘텐츠의 활용 범위를 확산시킨다. 새문안교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대형교회로, 교회의 역사 정립 및 정체성 확립과 함께 유구한 신앙 역사를 웹상으로 홍보한다는 선교의 일환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은 웹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그림 7〉 교회사료관의 웹콘텐츠 구축 사례



우선 교회사료관 홈페이지는 5개의 상위 메뉴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록을 활용한 콘텐츠는 교회역사와 e-archive 코너에 구축되어 있다. 교회역사 코너에서는 예배당 변천, 역대 담임목사, 국내외 선교활동, 사회봉사활동, 의료선교, 교육활동 등 세부 항목을 편성해 사진 및 해당 기록물, 동영상을 가지고 기록콘텐츠를 구축하였다. 가령 예배당 변천 항목에서는 시대별 교회 건물의 실제 사진과 함께 예배당의 변천 내역을 소개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항목에서는 본 교회에서 지난 100여 년간 수행해 온 각종 사회사업상의 교육활동들을 관련 기록 및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동영상 항목에서는 교회 100년사를 20분 내외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e-archive 코너에서는 그동안 본 교회에서 생성된 당회 회의록, 제직회 회의록 및 각종 자료들을 PDF파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교회기록을 웹 자원화 시켜 증거로서 획득한 기록들을 교회 공동체의 역사성 정립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록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교회기록의 다원화와 기록콘텐츠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에서 차원2를 거치며 교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증거를 기록으로 고정화시키고, 차원3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교회 신앙공동체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억이 되었다면, 차원4의 다원화 과정을 통해서는 교회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말하는 ‘다원화’는 기록에 담겨진 행위의 내역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공유되는 과정으로(Reed 2005, 178), 차원4를 기반으로 교회가 속한 총체적 사회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기억으로 기록의 의미와 활용가치를 확장시키게 된다.

기록이 지닌 의미를 총체적 사회 차원으로 확대시키고자 한 레코드 컨티뉴엄의 사고는 최근의 사회 환경을 감안한 귀결이다. 사회적 관계의 다원

화 경향, 특히 인터넷을 필두로 한 네트워크 기술의 진전은 기록이 지닌 의미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사회는 인간의 사회적 행위들로 구성되고 이 행위들은 기록으로 남게 된다. 또한 인간의 행위가 벌어지는 시간 및 공간적 범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지니게 되는 의미의 폭을 말하게 되며, 이는 곧 기록이 지니게 되는 의미의 범위를 규정짓게 된다(김명훈 2010, 144).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모든 기록은 차원4에서 말하는 집단기억으로서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상정된다(Reed 2005, 180-181). 즉 해당 기록의 사안이 100년 전이건 일주일 전이건 현재 진행 중이건 상관없이 모든 기록은 집단기억을 형성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기록 모두 집단기억으로 승화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보존되지 않거나 폐기되어 망각될 수도 있고, 또 항구적으로 보존된다 할지라도 서고 속에서 사장되어 그 의미 및 가치가 발현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락교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는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는 개인기록 및 사진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활동에 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시키고자 하는 유용한 기록콘텐츠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8〉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 화면



위의 그림에 제시된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는 영락교회의 창시자인 고 한경직 목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예수 사랑, 겨레 사랑의 정신으로 한 평생 청빈의 삶을 살았던 고 한경직 목사를 기억하기 위해 구축한 사이트로, 한경직 목사의 생애사 및 종교, 사회, 봉사, 교육 활동에 관한 기록 및 사진, 각종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화 시킨 것이다. 한경직 목사는 1929년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귀국해 1933년 의산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1945년 12월 영락교회를 설립하여 세계 최대의 장로교회로 성장시킴과 아울러 한국 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활동한 인물이다. 이러한 한경직 목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의도한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는 한경직 목사의 생애 및 다방면에서의 활동과 함께, 이러한 활동을 계승시킬 목적의 각종 자료들에 소개 및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9〉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의 생애사 콘텐츠 화면



위의 그림은 한경직 목사의 생애를 유년 및 학창시절, 유학 및 사역시절,

은퇴와 소천으로 구분하여, 각 시절별 사진자료 및 이에 대한 설명을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기념사이트 상의 활동 부분에서는 환경직 목사의 생전 활동상을 목회, 선교, 사회봉사, 학원설립, 애국이란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종 사진자료와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직 목사의 생전 활동에 관한 방송, 뉴스 인터뷰 등의 동영상상을 서비스할 뿐만 아니라, 환경직 목사의 설교자료 및 저서 등 각종 기록을 아카이빙하여 해당 자료들을 사이트상에서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그림 10〉 환경직 목사 기념사이트 기록콘텐츠 사례



한편 캐나다 연합교회(United Church of Canada)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기록콘텐츠는 기록을 통해 교회의 과거 행위에 대한 국가 및 사회와의 역사적 화해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다원화의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해준다. 캐나다 연합교회는 캐나다 각 교파들의 내부에서 일어난 통합운동의 결과로, 1925년 캐나다 회중교회·감리교회·장로교회가 연합하여 토론토에 세운 교회이다. 본 교회의 아카이브에서는 최근 “기숙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원주민 어린이들의 기억화”(Residential School Archive Project: The Children Remembered)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는 교회기록 및 사진자료들을 수집해 디지털 콘텐츠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기반으로, 본 교

회에서 19세기말부터 수행했던 인디언 기숙학교의 과거 과오에 대한 사회적 반성 및 화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인디언 기숙학교는 캐나다 정부에서 추진한 원주민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개신교 및 가톨릭교회에서 설립한 취학 연령대 원주민 어린이들을 강제 수용한 시설로, 1870년 이래 130개소가 설립되어 약 15만 명 이상의 인디언 어린이들을 가정과 분리시켜 언어문화 말살을 위한 주입식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 지난 1986년 캐나다 연합교회 총회에서는 인디언 원주민들에 대해 사과를 전달하고, 교회 아카이브에서는 인디언 원주민과의 역사적 화해를 위해 관련 기록콘텐츠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림 11〉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운영한 인디언 기숙학교 지도 화면



위의 그림은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에서 구축한 “기숙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원주민 어린이들의 기억화”의 학교역사 사이트 메인화면으로, 1870년 이래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운영해 온 지역별 인디언 기숙학교를 도

식화한 것이다. 해당 화면에서 이용자가 선택한 지역을 클릭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이, 해당 학교의 개황 및 운영, 역사, 지역사회와의 관계, 교육방식, 어린이들의 상황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해주고 있다.

〈그림 12〉 해당 지역의 인디언 기숙학교 역사 소개화면

Home	About the project	Contact	Project News	School Histories	School Images
------	-------------------	---------	--------------	------------------	---------------


You are here: Home / School Histories / Ahousaht Indian Residential School

Ahousaht Indian Residential School

Dates of operation:
1895-1904 (day school / informal boarding school),
1904-1916, 1918-1940

Operated by the Presbyterian Church and, after 1925, by the Board of Home Missions of the United Church of Canada. The school building was owned by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which also nominated staff and contributed financially to the school for most of its history.

Location:
Just south of the Maktosis Indian Reserve #15, of the Ahousaht First Nation, on the southeast end of Flores Island, Clayoquot Sound, off the west coast of Vancouver Island, British Columbia. The school was on land the WMS purchased outside of the reserve, two kilometres from the Ahousaht village, and about 20 kilometres north of Tofino.



Boys and girls at Ahousaht IRS, 1939. Bob Stewart Archives, B.C. Conference 2-74.

이와 아울러 ‘학교 이미지’ 항목에서는 해당 인디언 기숙학교의 역사 사진들을 수집해 디지털화 하여, 학교 구성원, 재학 중인 인디언 어린이 사진 및 수업광경, 학교 교육시설 등 학교의 역사에 관한 사진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단 사진에 제시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핀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와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 사례는 과거의 행위에 대한 증거로서 획득된 기록을 차원4의 다원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지니게 한 사례들로 해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한경직 목사의 삶을 본받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본 사이트의 개설 의미처럼, 개인기록 및 사

진자료를 가지고 개인의 활동에 관한 의미를 사회적으로 공유·확산시키고자 하는 기록콘텐츠 사례를 제공해준다. 아울러 캐나다 연합교회 아카이브 사례는 인디언 거주학교에 관한 역사 사진들의 디지털화를 통해 과거의 교회 행위에 대한 역사적 반성, 인디언 원주민 사회에 대한 사과 및 화해를 범사회적으로 시도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기록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해, 기록의 의미 확산을 의도한 레코드 컨티뉴엄 논리에 의거하여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교회기록콘텐츠 사례를 재해석해 보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록의 의미 및 활용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각 차원별 기록관리상의 특성과 함께 교회기록콘텐츠의 방향을 가늠해 줄 수 있다는 전제에서, 교회의 보편적인 기능 및 교회기록의 기록학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회는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라는 보편적 대사명을 기반으로 조직을 편제한 형상유지 조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니며, 아울러 비공식적 조직으로서의 속성과 함께 비상근 방식의 조직운영 패턴을 지님을 파악하였다. 또한 교회 기록은 매체의 다양성과 함께 동일 기록물의 반복적 생산 경향이 있음을 도출하였으며, 또한 아카이브스와 매뉴스크립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로 인해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모토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행위들 가운데 기록을 체계적으로 획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며, 쌍무적 관계보다는 교인간의 유대를 중시하는 공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상당수의 활동이 기록이 아닌 구두로 처리되는 경향

이 농후하였다.

이에 3장 1절에서는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과 차원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교회기록콘텐츠 구축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행위의 흔적들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인 기록으로 획득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였다. 즉 기록처리일정표와 같은 통제장치의 마련, 기록 서식의 표준화 및 이를 통한 필수 메타데이터의 원천적 확보 및 중요 기록물에 대한 생산 지정제도가 바로 그것이며, 아울러 이를 기반으로 각 부서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사에 대해 지식정보콘텐츠로 활용한 사례 역시 제시하였다. 이어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 3에 해당하는 2절에서는 교회는 예배·선교·교육·친교·봉사를 본원적 사명으로 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명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공동체의 기억 유산으로서 활용되는 기록콘텐츠 사례를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3절에서는 교회기록콘텐츠의 의미가 범사회적으로 다원화되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차원1에서 차원2를 거치며 교회의 신앙활동에 관한 증거를 기록으로 고정화시키고, 차원3의 조직화 과정을 통해 교회 신앙공동체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기억이 되었다면, 차원4의 다원화 과정을 통해 교회 차원을 넘어 교회가 속한 총체적 사회의 기억으로 기록의 의미와 활용가치가 확장된다는 논리에서이다.

종이기록 환경에서 전자기록 환경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지금, 기록콘텐츠는 기록이 지닌 의미의 확산 및 이를 통해 활용성을 제고시키는 유용한 방안임은 분명하다. 이에 여기서는 기록콘텐츠가 지닌 이러한 가치를 보다 제고시키기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두 가지 의견을 피력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기록콘텐츠에 대한 기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의 디지털 환경을 맞아 기록콘텐츠는 고도의 컴퓨터 기술력 및 예산 투입을 기반으로, 특정 세부 주제와 관련된 기록들을 선별하여 제작한 디지털 매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레코드 컨티뉴엄에서 의도하는 기록의 의미 확산

및 활용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디지털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이용자와의 인터페이스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기록콘텐츠의 의미를 재해석해야 한다. 아울러 기록콘텐츠의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확산 및 이를 통한 기록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굳이 높은 수준의 컴퓨터 기술 및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제작하고 접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가령 일상생활 속의 개인 블로그도 해당 개인에 관한 유용한 기록콘텐츠이며, 윈도우 무비메이커로 간단히 제작한 동영상 역시 생동감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기록콘텐츠이다. 문제는 일상생활 속의 행위에 관한 흔적들을 어떻게 기록으로 획득해 기록콘텐츠를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

다음은 기록콘텐츠의 목적성 문제이다. 현재 기록관리기관에서 구축해 서비스 중인 기록콘텐츠의 대부분은 특정 역사 내지 사건과 관련된 기록콘텐츠들이다. 물론 이러한 기록콘텐츠의 주제 선정은 매우 적절하며, 콘텐츠의 구축 목표 및 지향점 역시 명확하다. 하지만 기록콘텐츠의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확산을 위해서는 기록을 생성한 조직 차원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조직 내 구성원들이 기록의 의미를 찾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록콘텐츠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록콘텐츠는 기록 속의 내용을 가공하는 IT 기술상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기록콘텐츠는 기록이 지닌 현재적 미래적 가치의 모색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록콘텐츠의 구축 이전 기록이 생성된 모델로서의 조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직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아울러 해당 조직에 대해 사회 구성원이 요구하는 기록의 의미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기록의 의미를 확산시키고 활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록콘텐츠를 구축해야 한다.

〈참고문헌〉

- 김기덕. 2003. 콘텐츠의 개념과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 1, 5-27.
- 김명훈. 2010. 레코드 컨티뉴엄과 평가, 그리고 기록콘텐츠: 기록콘텐츠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정보관리연구』, 41(3), 131-153.
- 김익한, 설문원. 2006. 이승만시기 국무회의록과 정부부처 기록의 연관구조 분석에 기 반한 역사 콘텐츠 설계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2), 115-136.
- 심성보. 2007. 교수·학습자료용 기록정보 콘텐츠 서비스의 구성 및 개발. 『기록학연구』, 16, 201-256.
- 원종관. 2007. 『레코드 컨티뉴엄의 속성을 통해 본 증거와 기억의 조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학 외. 2012. 『현대기록학 산책』. 한국외대 기록학연구센터총서 2. 서울: 다해출판사.
- 전수진. 2008. 보존기록관리기관의 온라인 콘텐츠 유형과 특징.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127-152.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교회 기록물관리 방법론 연구』. 서울: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Bearman, David. 1994. Diplomats, Weberian Bureaucracy, and the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in Europe and America. *Electronic Evidence: Strategies for Managing Records in Contemporary Organizations*. Pittsburgh: Archives & Museum Informatics, 254-277.
- Delmas, Bruno. 2001. Archival Science Facing the Information Society. *Archival Science*, 1(1), 25-37.
- Flynn, Sarah J. A. 2001. The Records Continuum Model in Context and Its Implications for Archival Practic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2(1), 79-93.
- McKemmish, Sue. 1994. Are Records Ever Actual?. *The Records Continuum: Ian Maclean and Australian Archives first fifty years*. McKemmish, Sue & Piggott, Michael eds. Clayton: Ancora Press in association with Australian Archives.
- McKemmish, Sue. Placing Records Continuum Theory and Practice. *Archival Science*, 1(4), 333-359.
- Reed, Babara. 2005. Beyond Perceived Boundaries: Imagining the Potential of Pluralised Recordkeeping. *Archives and Manuscripts*, 33(1), 176-198.
- Reed, Babara. 2005. Records. *Archives: Recordkeeping in Society*(Australasia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24). Sue McKemmish, Michael Piggott, Barbara Reed, Frank Upward eds. Wagga Wagga: Centre for Information Studies, Charles Sturt Univ., 101-130.

- Ribeiro, Fernada, 2001. Archival Science and Changes in the Paradigm. *Archival Science*, 1(3), 295-310.
- Trace, Ciaran, 2002. What Is Recordde Is Never Simply 'What Happened': Record Keeping in Modern Organizational Culture. *Archival Science*, 2(1), 137-159.
- Upward, Frank & McKemish, Sue, 2006. Teaching Recordkeeping and Archiving Continuum Style. *Archival Science*, 6(2), 219-230.
- Upward, Frank, 1996. Structuring the Records Continuum-Part 1: Postcustodial Principles and Properties. Records Continuum Research Group Publications. (<http://www.sims.monash.edu.au/research/rcrg/publications/recordscontinuum/fupp1.html>)

〈참고 사이트〉

- 미국 노스코스트(North Coast) 교회 홈페이지 <http://www.northcoastchurch.com>
- 새문안교회 사료관 홈페이지 <https://archive.saemoonan.org:557/index.asp>
- 캐나다 기숙학교 아카이브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thechildrenremembered.ca>
- 한경직 목사 기념사이트 홈페이지 <http://hankyungchik.org>